

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과 저희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 아쉬켈론의 저희 구호 사역을 위해 재정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을 인해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스태프 에두아르드의 팀이 가지고 있는 재정 (개인 저축 포함)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는 오병이어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많은 친구, 동역자들을 통해 사역의 자원을 크게 불러 주셨습니다!

아쉬켈론의 상황은 여전히 긴장케 합니다. 로켓 경보가 매일처럼 울리고, 많은 식료품점과 필수 상점들이 인력 또는 방공호 부족으로 문을 닫은 상태이며 많은 사람들은 외출을 두려워합니다. 차가 없는 분들은 특별히 걷거나 대중교통으로 장을 보러 가야하기 때문이죠. 더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는 건 노인과 장애인 분들입니다. 에두아르드가 요즘 돕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타치아나와 콘스탄틴은 70대로, 가까운 친척이 없습니다 (하나 밖에 없는 딸도 잃었습니다). 가자에서 날아온 로켓 중 하나가 이들이 사는 아파트에 떨어졌지만, 감사하게도 그들은 거주 중인 층의 방공호로 피해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심리적 충격을 받아 힘들어했는데, 특히 타치아나는 감정 상태가 매우 유약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들이 예일랄에 있는 작은 호텔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었지만, 며칠 전 이 "휴가"가 끝났고 부부는 긴장 상황과 로켓 경보가 끊이지 않는 아쉬켈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부의 집엔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에 다른 도시로 당분간 몸을 피하고 있던 같은 층 이웃들이 자신들의 집에 부부가 거하게 해주었습니다. 콘스탄틴은 장애가 있고, 타치아나의 몸은 트라우마를 겪으면서부터 제대로 기능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에두아르드의 팀이 이 가정을 돌보고 있는데, 음식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여러 필요를 돕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콘스탄틴은 한밤 중에 에두아르드를 불러 감정 상태가 심각해진 타치아나를 응급실로 데려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집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에두아르드의 팀은 부부를 위해 기도하며 성경을 한 권 주었습니다. 전쟁의 끔찍한 현실로부터 계속 고통 당하고 있는 이들과 아쉬켈론의 많은 주민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다른 프로젝트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에서 저희 팀은 전쟁 상황과 로켓 경보에도 불구하고 모두 아비브 센터를 평소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중독자들, 노숙자들, 특별히 재활 센터에 가기로 결정하는 이들을 위해, 거리를 돌아가지 않고 재활을 마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여 이 모든 이들을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성 쉼터와 재활 센터 입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안타깝게도 거의 2년 동안 여성 쉼터에서 함께 지내온 장기 자원 봉사자가 10월 초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에는 로켓 경보가 아쉬켈론 만큼 자주 뜨진 않지만, 전쟁 전부터 감정 상태가 불안했던 여성들이 많기에 굉장히 많은 이들이 트라우마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두 풍성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도브, 올가 비카스와 아비브 미니스트리 팀 드림

Constantine and Tatyana and their building:



In Aviv Center:

